

Sony, 화학사업 인력 5000명 감원

패널부문도 5000명 감축 결정 ... 화학사업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매각

일본 전자기업 소니(Sony)가 2012년 근로자 1만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4월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화학사업 부문에서 5000명, 패널 부문에서 5000명 정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1만명은 소니 전체 인력 16만8200명의 6%에 해당한다.

인력 감축과 함께 하워드 스트링거 회장 등 집행임원 7명의 상여금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소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인 2008년 12월 1600명 이상을 감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니는 사업구조 재편으로 일본정책투자은행에 화학사업을 매각하기로 했고, 4월1일자로 도시바(Toshiba), 히타치(Hitachi)제작소와 중소형 패널 사업을 통합했다.

소니는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과 벌인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면서 TV사업 악화로 2011회계연도에 약 2200억엔(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2012/04/10>